

“한국국제협력단(KOICA)과 시민 사회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” 포럼

I. 행사 개요

염곡동)

1. 일반사항

- 주 제 : 「국제협력단 · 시민사회간 파트너십
강화 포럼」
- 일 시 : 2006.11.23(목) 14:00~18:00
- 장 소 : 국제협력 연수센터 대회의실(서초구

- 주 최 : 한국국제협력단
- 참석자 : 96개 기관 167명 (KOICA30명 포함)
 - 정부(유관) 기관 : 32개 기관 51명
 - 개발 NGO : 24개 기관 37명
 - 기업 : 21개 기업 26명
 - 학계 : 15개 대학교(원) 18명
 - 기타 : 4개 기관 5명

2. 진행일정

식 순	시 간	주 요 내 용
개회식	14:00-14:20(20분)	- 국민의례 - 국제협력단 총재 환영사
KOICA 소 개	14:20-14:35(15분)	-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 방향 (박강호 국제협력단 이사)
주제발표	14:40-15:30 (각25분씩 총50분)	- 시민사회와 국제협력단 협력현황 및 파트너십 강화방안 (이해균 국제협력단 이사) -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(이태주 한성대 교수)

식 순	시 간	주 요 내 용
-----	-----	---------

휴식 (15:30-15:50, 20분)

토 론	15:50-18:10 (140분)	- 사회 및 지정토론 · 사회 : 김은미 이화여대 교수 · 지정토론 : 총 11명 <명단 후술> - 자유토론 - 국제협력단 총재 총평
만 찬	18:20~20:00	- 총재 주재 만찬 (국제협력연수센터 8층)

3. 포럼 목적

지방자치단체, 민간기업, 언론사 등을 포괄한
광범위한 pro-ODA 시민사회(civil society)
네트워크 구축

-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간 상호 보완성, 호혜
적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파트너십
구축 방안 모색
- 분야별 전문가 풀(기관 및 협회 포함), NGO,

- ODA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
통해 국민적 지지 획득
- 시민사회에 대한 국제협력단 및 ODA 홍보

4. 사회·토론자

이 름	소 속	분 야
김이경	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	교 육
김창엽	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	보건의료
황원규	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	행정제도
정기환	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	농촌개발
노일수	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	정보통신
이완재	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홍보위원회 간사	산업에너지
한비야	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	재난구호·복구
박동균	동북아산림포럼 사무처장	환 경
김석환	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장	직업훈련
손혁상	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	개발NGO
이육원	주)한미파슨스 해외마케팅 상무	해외건설

II. 발표 및 토론 내용

1. 발제 요지

■ 박강호 KOICA 이사

(제목 :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 방향)

- 대외무상원조사업 실시 환경 및 우리나라 ODA 현황
- KOICA 전략목표 및 기본방향
- 대외무상원조사업 집행전략(지역별/분야별)
- 우리나라 ODA 개선 과제

■ 이해균 KOICA 이사

(제목 : 시민사회와 국제협력단 협력현황 및 파트너십 강화방안)

- 시민사회의 정의 및 분류
- 파트너별 참여 현황 및 형태별·분야별 분석
- 개발원조 파트너십 강화방안으로 아래 6개 사항 제시
 - 파트너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
 - 대국민 홍보 및 인식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
 - 개발협력 참여업체 발굴 노력 강화
 -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
 - 시민파트너들의 ODA이해 증진 노력
 -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

■ 이태주 한성대 교수

(제목 :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)

- 국제개발과 시민사회, 다중적 이해당사자들
- 선진국의 국제개발과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례
 - 영국 DFID
 - 미국 USAID
 - 호주 AusAID
 - 캐나다 CIDA
- 한국 ODA 성과제고를 위한 다중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으로 아래 4개 부문 제시
 - 지식기반 ODA 국제개발 파트너십
 - 국제개발 에드보커시 시민사회 파트너십
 -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국제개발 파트너십
 - ODA 성과관리 평가피드백 파트너십

2. 토론 요지

■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(교육 분야)

- 교육분야 지원을 한류 열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구현
- 정보 인프라, 초중등 멀티미디어, 고등 과학 기술, 한국학 지원 등 교육분야 지원영역의 확대 추진 필요
- 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 확대를 위해 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
- 시민사회가 축적한 개발원조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국제협력단이 확보하여 활용하고, 시민사회는 국제협력단과 약정 체결 등

을 통해 공식 네트워크 구축

- 방한 수원국 인사와의 파트십 강화차원에
서 국제협력단이 지원 프로그램 개발
- 사업성과 축적 및 지식·정보 공유를 위해
국제협력단의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

■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보건의료분야)

- 명확한 목적과 전략 수립이 우선 필요
- 기획기능을 강화하고, 분야별 우선순위를
부여한 협력 실시
- 보건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인재육성을 위
한 자문단 운영, 협력센터 설치, 시민사회와
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실시
- 보건분야 사업을 위한 매뉴얼 개발(사업표
준화와 지식 자원화)
- 개발인식 증진은 ODA 필요성 국내 전파 뿐
아니라 수원국과 지원국간 건강한 긴장관
계 유지를 위한 방향을 시민사회가 제시하
고, 감시하거나 촉구

■ 황원규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(행정제도
분야)

- 행정제도는 KOICA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
지식 집약적이고 경쟁력 있는(비교우위를
갖춘) ODA지원 분야이며, 파급효과가 큰
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략에 기초하여 추진
필요
- 50대 이상 시니어전문가들은 경제개발의
전(全)과정을 체험한 세대이므로 타 선진국

에 비해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 전수 가능

- 국제기구는 시민사회, 기업의 원조사업 참
여를 적극 진작시키고 있음. 국내초청연수
의 경우, 관심이 저조한 공공기관보다 대학
연구소 등을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특화
지원
- 행정제도분야의 집행기능을 외부로 대폭
이양하고, KOICA는 정책 수립, 기획 및 평
가에 보다 전문화하는 역할 분담 필요
- 사업 조정 및 예산 집행 등에 보다 유연한
사업 추진 필요
- 개발협력사업 참가를 위한 시장 기능 도입
(영리성 제공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)
- 반관반민 ODA사업 집행기구의 설립 또는
개도국 전문 컨설팅 회사 등 준영리 법인의
참여 확대 및 육성

■ 정기환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(농촌
개발분야)

- 농업분야 중 식량, 농업정책, 농촌개발, 소
득증대 등은 수원국의 우선 관심분야이며,
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과 빈곤문제를 효과
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우리가 비교우위 보
유
-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퇴치를 위해 중요한
국별 과제를 파악하고, 우선순위에 따라 체
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긴요
- (열대)농업과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ODA 전
문가 양성 지원 필요. 개별 전문가보다 팀제

- 전문가 파견 시스템 도입 필요
 - ODA사업 참여자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용역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 필요
 - 원조규모 증가에 걸 맞는 역할 분담 (KOICA - 사업기획·평가/시민사회 - 사전조사·집행)
 - 농업프로젝트는 개별 단위 사업보다는 종합개발 프로그램 추진 방식이 바람직.
 -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 및 적극적인 전파
- 노일수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(정보통신분야)
- 원조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저변확대와 예산확대 노력 경주
 -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확보 노력 경주
 - KOICA 및 전문NGO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
- 이완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홍보위원회 간사(산업에너지분야)
- 포화상태인 국내 엔지니어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차원에서 경제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 추진
 - 우리 건설업체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비구속성 ODA 집행 반대
 - 개발조사사업 확대와 타당성 조사 후 유무상 원조의 연계를 통해 본 조사 시행 적극 추진
 - 원조사업의 발굴 및 조달 경로 다각화(현지
- 기업이 개발한 사업의 조달은 정부가 아닌 동 업체가 직접 실시)
- 한비아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(재난구호·복구분야)
-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약속 이행
 - ODA 전문가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풀 활성화 뿐 아니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중요, KOICA에서 본건을 추진할 전담창구 지정
 - 우리의 수요와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한국형 원조사업 모델을 개발하고,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책임성 있게 추진
- 박동균 동북아산림포럼 사무처장(환경분야)
- 우리의 다양한 환경파괴와 복원 경험을 아시아 각국 및 시민과 공유하고,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개념을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가 전파토록 공동 노력
 - 수질자원관리, 환경관리, 환경시스템, 환경경영 등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를 중점 아시아에 수출
 - 중국이나 몽골의 황사 등 우리나라가 직접적 여파가 미치는 민감 분야 및 국가에 대한 지원 지속
 - 국제협력단은 개발사업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활용하고, 시민사회에 공개 (국제개발연구센터 설립)
 - 비교우위 환경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인프

- 라건축, 개발조사, 전문인력 파견, 국내 초청연수 등 중점 추진
- 양자간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간 사업에도 적극 참여
- 수원국 NGO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민간단체의 국내초청연수 적극 지원

■ 김석환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장 (직업훈련분야)

- 파트너십 강화차원에서 원조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
- 원조자금을 정부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창출시키는 방안 연구 필요
- 수원국내 교민에게도 원조효과가 파급되도록 정책적 배려
- 전문인력 파견시 민간기업 전문가 및 전문직의 은퇴자 공모를 통해 원조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
- 해외봉사단파견, 국내연수생 초청은 기존의 인프라 건축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
- 개발협력 컨설턴트 적극 육성
- 지식기반 개발원조의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의 참여 유도는 바람직하나, 장기연수, 학위과정은 시기상조

■ 손혁상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(개발NGO)

-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(포럼개최, 인식공동체 구성 등)
- 시민사회와의 공동 연구(연구센터 설립) 및 사업개발·선정·평가추진
- 개발 NGO, 전문가 육성, 연구프로젝트 지원

■ 이옥원 한미파슨스 해외마케팅 상무(해외건설분야)

- CM(Construction Management)은 국제협력단·수원국·민간기업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윈윈하는 사례

■ 송진호 한국YMCA 전국연맹 협력사업국장 (자유발언)

- KOICA는 시민사회를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며,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
-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는 외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이 우선 필요
-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효율성 이외의 다른 가치도 감안하는 것이 긴요하고, 새마을운동, 태권도, 의사파견 등 전통적 지원 외 민주주의, 인권, 소수인종배려 등 여타 특별이슈도 추진필요

■ 유병욱 순천향대학병원 외국인 진료소(자유발언)

- KOICA는 교육기관으로서 연 800명 규모

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, 청년들의
앞날에 기회를 제공하는 귀중한 역할

- 이국근 한몽 교류진흥협회 상임이사(자유발
언)
 - 해외원조사업은 KOICA로 통합함이 바람직
 -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KOICA에 의존하지
말고 스스로 실현
 - ODA예산 특히, KOICA의 인건비 인상을
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필요
 - 해외봉사봉사단 운영위탁 문제에 대한 심
도 있는 연구 필요

- 국제협력단 사업에 적극 활동한바 있는 분야
별 전문가를 토론자로 참여시켜 실제적이고
내실 있는 토론 실시

- 정부, 학계, 개발NGO, 전문협회, 분야별 전
문가, 민간기업 등 개발원조에 직접 또는 간
접으로 관련 있는 각계각층의 다중이해 당
사자를 토론에 참가시켜 「국민과 함께하는
선진원조」실천을 위한 노력 전개

- 특히,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대외원조사업
및 국제협력단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을 인정
하면서,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간 파트너십
강화를 위해 다음 3가지 방향에 공동 인식

Ⅲ. 평가 및 향후 추진사항

1. 평가

- 1991년 국제협력단 발족 후 최초로 시도된
행사로써 이 기회를 통해 국제협력단 및 시
민사회의 역할과 ODA사업의 중요성에 대해
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주요성
과 거양
 - 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간 협력 필요성 및
협력현황 소개
 -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효과적 파
트너십 구축 강화 방안모색
 - 국제협력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
및 지지확대

가. 시민사회의 사업수행 능력 강화 필요

- 시민사회의 전문가적 역량의 배양과 경쟁
력 없이는 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원조사
업의 질 제고가 어려운 바, 국제협력단은 각
분야나 지역에 특화한 전문가의 적극적인
참여를 위해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 제도적
장치 마련

나. 시민사회 단체간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 활 성화

- 동일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관
이 네트워크와 상호교류를 촉진한다면 사
업추진상 오류를 줄이는 것은 물론, 유관기

- 관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이 가능
- 국제협력단은 이들의 협력을 통해 각자의 지식과 정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분 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

다.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확보 노력의 중요성

- 대외 무상원조는 여전히 일부 국민에게 그 효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,
- 국민 동의 없이는 무상원조의 대폭적 예산 증액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,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단 및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 강화 필요

2.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내용

- 파트너십구축 방식 및 선호 분야
 - 지원확대 및 집행의 자율성 보장
 - 지식기반 ODA사업 참여 및 국제협력연구센터 설립
 - 시민사회 전문인력 양성 지원
-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 주체
 - 시민사회 자체 평가 및 자율성 존중
- 국민참여 진작
 -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부각

3. 향후 추진사항

가. 기본방향

- 대외원조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협력확대는 향후에도 중요
- 따라서, 국제협력단은 전문적 시민단체를 적극 육성하고, ODA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대를 위해
 - ①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
 - ② 우수 시민사회단체 기관 능력 강화 및 인재육성 방안 강구
 - ③ ODA 여론 주도층의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개발 적극 추진

나. 파트너십 구축강화

-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검토
 - 민간기업 등 시민사회의 외연확대
 - 국제협력 전문가 풀제 활성화 도모와 연계 추진
 - 중장기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희망하고 있는 가칭「국제협력연구센터」설립을 지원하여 국제협력단·시민사회간 대화의 장 마련 추진
- 효율적인 시민사회단체 지원방식 도입 검토
 - 전문적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 방안 모색

· 컨설팅 등 지식 집약적 사업형태 적극 개발

· ODA 전문 연구소, 컨설턴트 등 적극 육성 방안 강구

-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시민사회 단체 지원 방안 강구

- 우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제협력 인재 양성 지원방안 모색

■ 개발원조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

- 분야별·지역(국)별 전문가 풀제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 커리어 관리 도모

- ODA사업 참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개발협력 전문가 인증제 도입 방안 검토

· 처우개선과 병행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 검증기능 및 질적 관리 강화추진

■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인식 증진 노력 강화

- MDGs, 빈곤타파, DAC가입, ODA정책 개선과제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지원 방안 검토

- 시민사회를 통해 여론 주도층 및 국민에 대한 ODA 홍보 강화

- 한국형 원조 모델 등 ODA에 대한 정책 연구 강화 및 적극 전파

다. 참여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역할 분담 강화

■ 시민사회 단체

- 보건의료, 교육 등 비교우위분야 지원 지속 확대

- NGO 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컨설팅 능력 확보로 다양한 개발 사업에의 참여 도모

- 기존 인프라 건축사업의 사후관리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모색

■ 정부 및 공공부문

- ODA정책, 법령 및 제도정비, 정부차원의 ODA 정보교환 등 적극 협력

- 개발 협력 및 사업 수행 관련 지식, 정보를 시민사회 및 기업 등에 제공

■ 민간기업

- 민간기업이 보유한 전문성을 ODA 사업 제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필요

- 고유 사업의 영리적 개념을 벗어나 정부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사업 마인드가 바람직

- 국제협력단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개발조사사업의 전략적 확대 추진 필요